



[뉴스] 농산물·석유값 폭등 소비자물가 2.6% ↑ 9년만에 최대 상승 02



Economy

코스피	3224.23 (+2.36)	코스닥	981.10 (-3.49)
금리 (미국 3개월)	1.206 (-0.007)	환율 (원/달러)	1113.30 (+7.40) (2일)

“기업 對美투자, 오히려 국내 일자리 창출 기회 될 것”

문 대통령, 4대그룹 총수와 오찬

4대그룹 덕에 韓美정상회담 성과 모든 일정 함께한 최태원 ‘큰 힘’ 최첨단 기술 공급망 보완 뜻 깊어

대미 투자에 국내 위축 우려 일축 중소·협력업체 동반진출 등 기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문재인 대통령,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삼성, 현대차그룹, SK, LG 등 국내 4대 그룹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앞장서 나가면 중소·중견 협력업체들도 동반 진출하고, 우리 부품·소재·장비도 더 크게 수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일자리가 더 창출되고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 4대 그룹사가 미국에 약 400억달러(44조원) 규모의 반도체·배터리 산업 투자 계획에 따른 ‘국내 일자리 위축’ 가능성을 문 대통령이 일축한 셈이다. 동시에 문 대통령이 4대 그룹에 투자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등 4대 그룹 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했다. <관련기사 3면>

간담회는 상춘재 앞 나무 그늘에 배치한 원형 테이블에 문 대통령과 참석자 등이 모이면서 시작됐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색과 분홍색으로 섞인 꽃 15송이 담긴 꽃병과 주스 등이 올라갔다.

상춘재 내부로 들어가기 전 원형 테이블에서 4대 그룹 대표 등과 만난 문 대통령은 먼저 “지난번 방미 순방 때 우리 4대 그룹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정말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미 양국 관계가 기존에도 아주 튼튼한 동맹 관계였지만 그 폭이 더 확장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최첨단 기술, 제품에서 서로 부족한 공급망을 보완하는, 더 포괄적으로 발전된 것이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가장 필요한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도 아주 뜻깊었다”며 “우리 4대 그룹으로서도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진출 부분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도 말했다.

이어 “제일 하이라이트는 우리 공동 기자회견 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지목해서 한번 일어서서 소개를 받았던 그게 제일 하이라이트 같다. 그만큼 우리 한국 기업들의 기여에 대해 아주 높은 평가를 해 주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은 문 대통령의 감사 인사에 “방미 성과 많이 한 것에 대해 정

말 축하드린다. 저희들도 굳건히 동맹 관계, 경제 관계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최 회장이 정상회담 일정 전체를 함께한 점을 언급하며 “정말 아주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문 대통령 발언에 “(에를랜타에 있는 배터리) 공장까지 방문해 주셔서 엔지니어들도 격려가 많이 됐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4대 그룹의 대미투자로 국내 일자리 창출 기회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 중소·중견·협력업체 동반 진출과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정의선 회장은 “(동반 진출 계획) 기회를 더 많이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웃으며 “그런 부분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미국 GM사와 LG, 포드사와 현대차 간 합작 또는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 건설 등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픽업트럭 같은 경우 한·미 FTA에서 관세 혜택을 우리가 받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수출이 어려운 분야였는데, 현지에서 합작하면서 그 부분을 뚫어낼 수 있게 됐다”고도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34명 구속, 908억 몰수·추징

‘NH사태’ 조사 중간결과

투기관련 646건, 2800명 수사 진행 김부겸 총리 “공직자 불법투기 사죄”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를 계기로 시작된 수사 중간 결과로 총 34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수익의 908억원은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관련기사 2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가졌다. 앞서 정부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1560명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구성하고 검찰에도 60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국세청은 탈세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세금탈루의혹을 조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대출단속에 나섰다.

이날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합수본은 합동조사단의 수사외, 국민권익

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고 검·경간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이다.

김 총리는 “부동산 투기 조사를 통해 차관급 기관장부터 기초 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담당자까지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정보를 확인했다”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합동조사단은 총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송치,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 공직자등중점단속대상으로는 13명이 구속됐고 174명이 송치됐다. 기획부동산 업자 등으로는 7명이 구속되고 355명이 송치됐다. <2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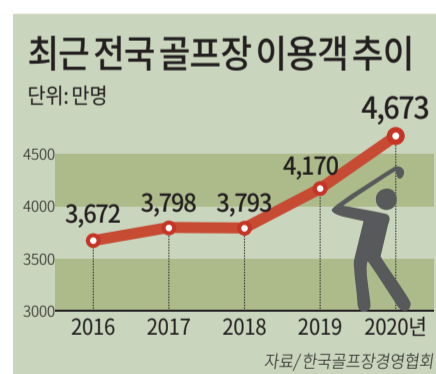
/나유리 기자 yul115@

‘코로나 특수’ 대중제 골프장의 꿈수영업

해외 여행 막히자 국내 골프장 특수 세제혜택 받으며 이용료 30% 올려

“퍼블릭(대중제 골프장)도 입장료(그린피)가 엄청 올랐어요”, “파쓰리(본 라운딩 나가기 전에 치는 연습 게임)도 사람이 몰려서 한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에요” 20대 골퍼 조승원(29)씨는 골프장에 사람이 몰린 탓에 이용료도 높아져 예약 잡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불러다친 지난해와 올해 국내 골프 산업은 호황을 맞고 있다. 먼저, 코로나19로 해외 골프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해당 수요를 국내 골프장이 흡수했다. 여기에 골프가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스포츠, 거리두기가 가능한 스포츠란 인식에 골프 저변이 넓어져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대중제 골프장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용한 걸까?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세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이 최근 급증하는 골프장 수요를 교묘히 활용해 그린피 등 이용료를 올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티스캐너가 제공한 골프장 그린피 정보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기준 경기 북부 18개 대중제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18홀 기준)는 18만 7000원이고, 경기 남부 38개 대중제 골프장의 경

우 23만 6000원이다.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는 전년대비 20~30% 오른 셈이다. 여기에 카트비와 캐디비도 덩달아 올라서 주말에 골프 한 게임을 치려면 인당 40만원은 써야하는 실정이다.

인기 골프장인 인천 오렌지힐스의 이번주 토요일 오전 1부 시간대 그린피는 29만원이고 안성 루나힐스 주말 그린피는 27만원이다. 인기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제 그린피보다 비싼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주말을 피해 평일에 예약을 잡고 가격이 저렴한 지방으로 원정을 다니는 골퍼도 늘어나고 있다.

골프예약서비스업체 ‘엑스골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예약률 현황을 보면 평일 예약률이 주말을 웃도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골프장은 웃음짓고 있다. <3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2일 코로나 19 확진자 600명 대로 급등... 서울 256명
▲ 서욱, 사망 여성사 부모에 “나도 딸 둔 아버지... 철저 수사” /사진 뉴스시

▲ 공군 남성 하사, 여군 숙소 침입해 신체·속옷 불법촬영
▲ 하태경 “한강 대학생 사건, 음모론 커져... 거리 뒤야”



▲ ‘털사 학살 100주기’ 바이든 “지울 수 없는 대학살” /사진 뉴스시
▲ 美, 5·18문서 14건 비밀해제... “최규하는 무력한 대통령”